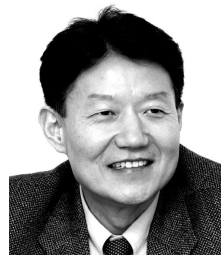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최근 길고양이를 돌보던 분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진 벽돌에 의해 사망하고 다친 사건이 보도되고, 잠시나마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캣맘)들과 이를 싫어하는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 오인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길고양이를 포함한 주인 없는 반려동물이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 등장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반려동물 중에서 개보다 사람과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고양이는 한번 사람 곁을 떠나 길고양이가 된 후에는 다시 사람 품으로 돌아오기 힘들어 입양도 그리 쉽지 않아 대부분의 길고양이들은 먹이를 찾기 쉬운 사람 주거 환경 내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는다. 사람의 생활공간 속에 야생화된 유기동물들이 만들어 내는 소음, 냄새 및 지저분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경로 적지 않다.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일부 주민들처럼 야생화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버려진 고양이들이 도시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은 외국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고 있다. 다행히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수만 마리 길고양이에 대한 뉴욕의 길고양이 대책에서 볼 수 있다. 두 단계 대책으로 이뤄진 뉴욕 대책은 우선 첫 단계로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불임수술을 한 후 다시 놓아주고, 다음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원 돌보미(국내의 캣맘)들이 길고양이의 특정 군집 단위를 맡아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중성화된 특정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캣맘들이 다른 길고양이들이 해당 군집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길고양이 군집이 자연스레 축소되고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서울시에서도 주민의 민원 증가와 더불어 주민과 캣맘 간의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와 더불어 버려진 반려동물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 간의 조화로운 공존 방식을 찾고자 동물복지과를 신설해 캣맘 인증제를 포함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더불어 조직화된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있는 우리사회에서 과연 생명존중을 말하는 불자들의 역할과 기여는 없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길고양이 누가 유기했나 생명 상품화하는 세대가 문제 생명 존중의 문화 만들어 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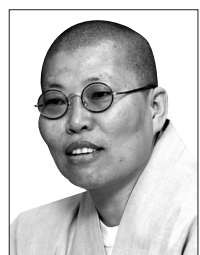
국내의 많은 유기동물은 대부분 주인이 버린 경우로써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고 단지 필요하면 얻고 귀찮으면 버리는 것이라는 식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기동물의 증가 상황에는 화노애락의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단지 공산품이나 물건으로 바라보는 폭력적이지 무지한, 너무도 비불교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나 불가에서 생명 존중은 단지 산

다, 죽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평안과 안위를 의미한다. 생명체는 누구나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에 같은 생명체로서 이에 연민이 마음을 지니며, 또한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만의 삶을 지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반려동물과 주민간의 문제는 단지 도시 내 유기동물과 주민간의 갈등을 넘어 버려진 동물을 보살피려는 이들과 주민이라는 사람 간의 분쟁 모습으로 계속 심각함을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신자로서 불살생이라는 생명 존중 가르침은 생명체의 생사를 넘어 모든 생명체의 안위를 전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을 줄이고, 또 이미 버려진 생명체를 돌보면서도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민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문화와 사회 체제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현시키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상황 인식은 개인 불자를 넘어 종단 차원에서의 대사회적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발언대 사찰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10월이면 전국 산사에서는 일제히 가을 축제가 열린다. 어느 순간부터 사찰 문화 축제는 불교 문화계 트렌드가 됐다. 사찰 문화 축제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불교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슷한 포맷에 문화 축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사찰 문화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사찰마다 색깔있는 콘텐츠 개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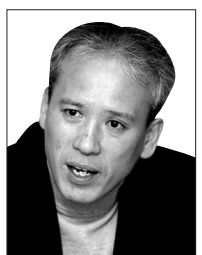


진명스님 조계종 전 부총장

이제 완전한 가을이다. 가을이 오면 산사는 오색단풍으로 물든다. 이 시기에 맞춰 전국 산사에서는 가을 축제를 연다. 가을 산사 축제는 어느 순간부터 불교 문화계 트렌드가 됐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불교 문화를 알리는 포교 수단이었다. 긍정적 효과가 많으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적지 않다. 먼저, 목적 의식의 부재다. 도반의 사찰, 이웃 사찰에서 문화 축제를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찰의 문화 축제는 음악회와 체험행사 등이 주를 이룬다. 당해 사찰만의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고千篇일롭적이다. 또한 사찰 축제가 규모만 커지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사찰 축제 빠지지 않는 음악회의 경우 사람을 모으기 위해

무리하게 대형급 가수들을 부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찰이 아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규모만 큰 문화행사가 되어 버린다. 사찰의 문화 축제는 기본적으로 불교적 심상이 담겨 있으면서 당해 사찰의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 이를 통해서 문화 향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사찰 문화 축제는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축제 계획한다면 우선적으로 당해 사찰만이 가지는 색깔있는 콘텐츠 개발을 주문하고 싶다. 한 가지 모범 사례를 들자면 강원도 홍천의 백락사다. 백락사는 매년 '강원 환경설치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백락사의 환경설치미술대전은 자연과 미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격조 높은 문화 행사이다. 사찰 문화 축제는 이제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때이다. 특색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 축제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회향해야 한다.

비슷비슷한 산사음악회 이제 그만



이종만 좋은벗종경사 대표

산사음악회가 상업적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 많은 사찰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포교의 일환으로 산사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상업적으로는 볼 수 없다.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이 축제'와 산사음악회의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산사음악회 개최가 늘어났다. 도심지의 사찰과 산중의 사찰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도심 사찰의 경우 주변에 많은 문화공연의 기회가 있기에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띤 음악회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산중의 사찰 또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산사에서 문화생활

을 즐기는 기회가 되기에 사찰만이 지닌 특색이 있는 문화행사로 진행해야 함에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 이면을 보면 불자 연예인이나 가수들을 폭넓게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 사찰의 경우 주지 스님이 행사진행을 도맡아 하거나 종무소 직원들이 하는 상황이다. 기획력이 부족하기에 '내가 아는 A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부르면 되지 않을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차별성이 없어 찾는 이들이 줄어들다 보니 유명연예인 초빙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 사찰은 재정적 한계가 있다보니 결국 산사음악회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산사음악회는 활황기인 2000년대 초보다 대폭 줄어든 상태다. 산사음악회는 산사만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자리로 지역주민들이 산사에 모여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자리에 기여 현재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불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불교문화를 알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社說

새 신행문화 만든 108산사 순례기도회

교박 9년이 걸렸다. 첫 순례 때 40대인 사람은 이제 50대가 됐고, 50대는 60대가 됐다. 선포하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 순례회의 시작은 2006년 9월이었다. 전국 사찰 108개를 순례하자고 통도사서 결의했다. 순례객은 순식간에 늘어났다. 120대의 버스가 고속도로서 줄지어 달렸다. 순례 도중 돌아간 어머니를 대신해 며느리나 딸이 순례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도 있었다. 어느 80세 노보살은 순례를 다니다가 다리가 아파 버스를 탈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아들이 직접 차를 몰며 어머니를 태우고 6년간 이 순례에 동참했다. 순례객들 중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도 더러 있었다. 이처럼 사연도 다양 각색이었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사찰순례문화가 발달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볼모지나 다름없었다. 108산사순례

기도회는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공헌을 했다. 순례회가 움직이면 모두가 기록이었다. 연인원 약 54만 명이 동참해 지구를 204바퀴나 돌았고 여기에는 1만 2천여대의 버스가 동원됐다. 또한 순례 사찰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씬을 보시해 총 3천여 가마의 씬을 공양했고, 군 장병에게 415만개의 초코파이를 보냈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분명 한국 불교의 올바른 신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기도도량 53곳을 순례하는 '선묵해자 스님과 믿음으로 찾아가는 53 기도도량 순례'에 나선다. 해자 스님 말처럼 108산사 순례가 고행의 길이었다면 53기도량 순례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

불교계, 통일 불사에 나서자

눈물의 2박 3일 간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10월 22일 마무리됐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임을 상기하는 순간이었다. 민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조계종이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신계사에서 법회를 개최했다. 천태종도 오는 11월 개성에서 법회를 예정하고 있다. 북한 불교와의 민간 교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면히 이어져왔다. 그만큼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런 노력들은 통일로 가기 위한 여정의 단편들이었다. 하지만 불교계 통일 불사의 관심 사각 지대에 있는 것은 바로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이다. 특히 어려서 탈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깊어 요구된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새터민 2만 80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서 청소년은 2000명에 달한다. 그들은 한부모, 고아, 중국인 부모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탈출과 중국 체류 과정

에 심한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혼자 탈출하면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던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못해 허탈감을 느끼는 이도 있다고 한다.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도 탈락률은 4.7%로 전체 학생 2%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3년에 창립된 불교계 새터민 지원단체 '통일바라밀숲'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통일바라밀숲'은 현재 33명의 새터민 대학생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교육·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새터민 포교는 통일 한국을 이끄는 중요한 불사이다. 불교는 새터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불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이제는 종단 차원에서도 새터민 포교에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판권: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교: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주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마음의정원 {랄랄라 진관사}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뽁뽁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법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투데이>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던 절을 찾아가네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트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y
우주적 합일의 만트라 상징 안트라
안트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안트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안트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명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만트라 상징으로 안트라와 의례의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안트라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트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후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안트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안트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